<1>

나는 소위 말해서 ‘살아지는 대로 사는 사람’이다. 내일 할 일, 이번 달의 목표, 연초면 다들 하곤 하는 신년 계획 그리고 더 나아가 인생의 목표까지. 사람들은 그 정도는 각각 다르지만 각자의 계획을 세우고 지키려고 노력한다.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이 개인간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다. 시간별로 쪼개서 일정을 짜며 플랜 B, 플랜 C까지 미리 생각해 놓는 사람이 있는 한편, ‘자유’ 여행의 이름에 걸맞게 여유와 유연성을 가지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후자에 속한다.

나는 원체 성격이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지키는 편이 아니며 즉흥적인 면이 강하다. 그래서 늘 ‘살아지는 대로 살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왔다. 모든 일이 꼭 순서대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 이런 내 성격과 습관은 시간 관리와 계획 수행의 중요성이 가장 부각되는 수험 생활 때에도 여전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떤 과목을 어디까지 공부하고,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까지 철저히 지키는 나의 친구와는 다르게 나는 그 날 공부해야 할 분량만 설정하고 때에 따라 집중이 잘 되는 과목과 시간을 선택해서 바꿔가며 공부했다. 할당된 공부량을 채우지 못하는 날들도 꽤 있었고, 밤에 공부가 더 잘 되는 탓에 수면 시간이 바뀌어 시험 기간마다 생활 패턴을 돌리느라 고생했다.

<2>

이러한 나의 성정은 나태해지기 가장 쉽다. 나는 나의 이 여유로움의 단점에 대해 수 없이 지적을 받아왔고, 이것을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었지만 가슴으로는 그다지 받아들이지 못했다. 내가 받아온 결과들이, 그것이 노력 때문이었든 혹은 운이 따라줬든 웬만하면 최선의 결과는 아니더라도 만족하며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무난했다는 점이 내 생각이 변하지 않는 데에 기여를 했다. 또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단정짓고 타인의 말을 한 번이라도 더 듣거나 나 자신을 되돌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탓이다.

상황의 압박과 주변의 부담 그리고 의무감에 하루하루를 게임 퀘스트를 클리어하듯 해치워 나갔던 수험생 때와